

잃어버린 신비를 찾아서

구 요비 읍 (지도신부)

작년 11월 늦가을에 홍천 모곡리의 산에서 참 제자 마을 축성미사를 드린 지 8개월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짧다면 짧은 이 시간 안에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명동 신협에서 4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홍천의 임야를 매입하면서 저는 "아차!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다져온 동료 사제에게 우리의 계획과 나의 고민을 모처럼 털어놓으니 "에이 이사람! 자네까지 그런 일에 뛰어 들다니!" 하며 호되고 차가운 질책을 받고 보니, 제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헌데 뜻밖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꺼이 봉헌해 주셔서 커다란 고비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깊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경제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낌없는 봉헌을 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매일 기도 중에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이 온갖 당신의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 동안 자주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형제 자매님들의 봉헌과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이 진정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문하곤 하였습니다. 아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염원을 들어주시고 계신 것일까? 하는 반문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요즈음 저는 "나는 과연 기적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나는 과연 내 매일의 삶이 신비(mysterium)의 베일로 감싸여 있음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표현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곰곰이 매일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연은 없으며, 모든 게 필연으로 이루어지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기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오묘하고 무수한 신비로 휘감겨 있음을 경탄하게 됩니다. 이 '신비'란 하느님의 섭리라는 고전적인 표현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아너지어 주시면 그 짓는 자들 수고가 헛되리다 주께서 도성을 아니 지켜주시면 그 지키는 자들 파수가 헛되리다 이른 새벽 일어나 늦게 자리에 드는 것도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잘 때에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시편 12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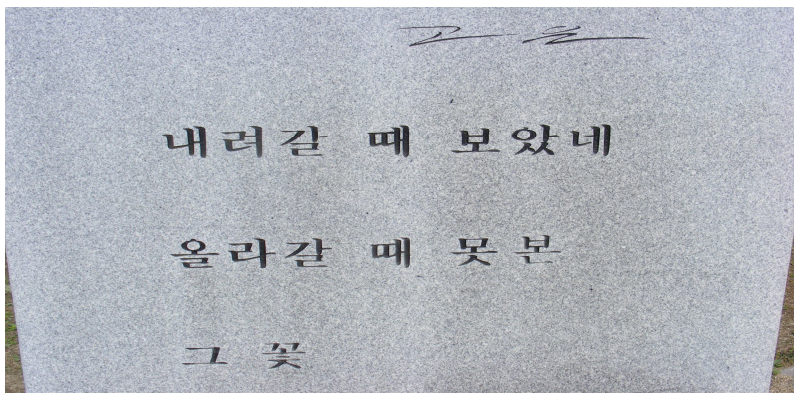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을 뜻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신비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신앙행위입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동시에 적극적인 응답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에게 달려 있으며 동시에 모든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성 이냐시오 료올라)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오 6, 33)

내일 설악산 백담사에 가는 날이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겠다고 잠을 청했다.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알람을 눌러 놓고 잤는데도, 5시 30분에 깨었다.
원래 나도 해비급이지만, 아내 루시아도 날씬한 몸매는 아니어서, 때때로 침대에서 잘 때는 한 사람이 역 방향으로 잘 때가 종종 있었다.
T.V.를 볼 때 잘 안 보인다든지, 또 술 한 잔 했을 때는 술 냄새가 날까 봐 미안스러워서도 그랬다.
어쨌든, 거꾸로 잘 때는 어깨 쪽이 넓어져, 편안함이 있다.
이날도 역방향으로 자고 있었는데, 새벽 잠이 덜 깬 때, 내 입술이 ‘툭!’ 하고 아내의 발에 채여, 놀라서 잠을 깨게 되었고, 그래서 다행히 아침 6시 전에 기상을 하게 되었다. 아내의 발이 나를 깨워준 셈이다.
그때 불현 듯 아내의 발바닥을 보니, 한 뼘쯤 되어 보이는 것이 귀엽고 예쁘게 보였다.
지금까지 이 작고 예쁜발로 루시아의 한 평생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다.
서둘러 준비를 끝내고, 집결지에 모여, Bus를 타고 백담사에 도착하여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다.
백담사 경내를 이리저리 돌아보다가, 큰 비석에 시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무심코 지나가면서 바라보니, 아주 짧은 시 몇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
유명한 고 은 시인의 시비였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별 의미 없이 몇 발자국 지나면서, 나는 입 속으로 몇 번 되뇌이며 음미하여 보았다.
그러면서, ‘무슨 시가 그렇게 짧아’ 하고 있는데, 불현듯 아침에 일어날 때 본 아내의 발바닥이 확 떠올랐다.
“맞아! 바로 그거야!”
그 발바닥을 생각해 보니, ‘툭!’쳐서 제 시간에 깨워준 것도 고마웠지만, 그 발바닥으로 걸어온 아내 루시아의 인생길이, 수많은 고난 속에 시련을 이겨내고, 내 곁에서 살아준 것이 더 고마웠고, 71년이란 인생, 인생의 나이테가 그 발바닥에 깊고 굵게 그려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꽃보다 더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주님을 알고 부터,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생각 나서, 더 더욱 주님께 감사 드린다.
역시 성경이나 위대한 분들의 시나 금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생명수 같이 다가오니,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깨달음의 감사를 기도해 본다.
고 은 시인의 그 짧은 시 구절이, 이렇듯 나에게 감명 깊은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총이라 생각된다.



< 참제자 마을 자문위원 >

<< 몽골 향을 본당의 피정에 다녀와서 >>

몽골 여름 밤의 보름달은 이곳보다 확실히 더 크게 보였고 더 밝게 빛났다.

금년 초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향을 본당에서 피정을 원한다는 부탁을 받았다.

몽골은 선교지역이어서 현재 세 곳의 본당이 있으며, 세 본당의 사제들은 모두가 외국 선교사이며, 몽골의 주교님은 한 분이 계신데 필리핀 출신의 선교사이다.

향을 본당에는 프라도회 소속이며 대전교구 출신의 김 승현 스테파노신부님과, 같은 대전 교구 출신의 프란치스코 보좌신부님이 계신다. 그리고 본당사목이 아닌 다른 사목을 하시는 대전교구 출신의 신부님이 한 분 더 계셔서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신 세 분의 신부님이 계신다.

몽골의 전체면적은 남한의 15배 정도이며, 전체인구가 겨우 260만 명 정도라 한다. 그나마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전 국민의 반이 살고있다니,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복잡하다. 교포 형제들은 향을 본당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한국말 미사를 드리며, 전체인원이라야 오십 명 쯤 이란다. 몽골은 추운 지방이어서 5월까지 눈이 오므로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국토는 넓지만 사막이 넓고 강우량이 연간 250mm 정도여서 너무나 건조하다. 자연환경이 그러니 우리 형제들의 삶도 힘들고, 또한 뼈아픈 아픔도 많다고 한다. 갖가지 사연으로 성공의 기회를 찾아 그 먼 곳에 가서 살면서, 서로가 위로하면서 살면서도 때때로 한인 공동체 안에서 아픔이 많다는 것이다.

그 아픔을 치유하는 피정을 부탁 받았던 것이다.

향을 본당의 주임신부님은 우리나라 출신이지만 모든 사목은 몽골인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우리 교포 형제들은 소외 당한 느낌으로 외로워했다. 피정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맡겨졌고 기도하며 주제를 정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 한 분을 부탁하여 함께 하였다.

도미니코형제는 제주도에, 안드레아는 직장은 군산 이고 가족은 서울에, 그리고 반주자 자매는 대전에 있으니 준비 모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안드레아가 반주자와 대전에서 한번 만나 인사한 것이 다행이었다. 출국하던 월요일 오후, 몽골의 기후사정으로 우리가 타야 할 비행기의 출발시간에 전날 출발했을 비행기가 연착되어 출발하게 되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우리도 함께 가게 되었다. 몽골에 도착하니 마중 나오기로 한 신부님은 오지 않았다. 우리가 전날의 연착된 비행기를 그날 예정시간에 타고 올 줄 몰랐으니 못 올 줄 알았단다.

가랑비가 조금 내렸다. 가뭄에 시달리던 몽골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고 기뻐들 하였다.

피정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퇴근 후 저녁시간에 향을 본당에서 진행하였다.

나흘간의 연속이므로 교포 형제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저녁에 2시간 반 정도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의 숫자는 어떨까? 나흘이란 긴 시간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하는 기도만을 열심히 하였다.

첫날과 셋째 날은 도미니코 형제가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이란 주제로 체험 발표를 하였고,

둘째 날과 넷째 날은 안드레아가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삶에 대하여 체험발표를 하였다.

부족한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께 믿고 의탁하는 기도에만 매달리는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함께한 모두를 붙잡히 여기시며 어루만지는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의 파견 미사는 성당 안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웠다. 함께 한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충분히 받아서 성령님의 기운이 넘치고 넘쳤다.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손수건이 부족하였고, 어떠한 이야기도 필요 없었다. 눈으로 서로 말했고, 모두가 몇 십 년 만의 만남을 갖는 듯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또 울었다. 온 몸은 뜨거워 불덩이 같았으며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 너무나 즐거웠던 그 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 피정은 그들 형제 자매를 위한 피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피정 이었음을 또 다시 체험하였다.

피정 중 기도로 함께 한 참 제자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소리가 피정 내내 컷전을 울렸다.

기도의 힘이 몽골에서 작은 기적을 뿌리내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참 제자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주 하느님, 찬미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영원하신 사랑의 하느님!!! !!! !!! !!!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느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표**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 이웃 사랑의 실천과 배움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584-9117
 팩스; 031-584-9117, e-mail ; thomyang@inteckor.com

< 신립 및 입급 현황 > 2008. 6. 30.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급액
103	620,992,000	562	392,084,000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유언 증여된 방선녀 카타리나님의 구로동빌라는 1억 4,000만원에 매각 신허 부채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 * 가톨릭 명동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4억 원 중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6월30일 현재 총 3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잔액은 1억 원 입니다.

- * 매일 12시 정오에 참제자 회원 모두가 참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중기도 후 참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 또는 주모경 및 어떠한 화살기도도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 김 종성 베드로 형제께서 4월 현대 스타렉스 9인승 봉고차량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서울-모곡 왕래 및 행사에 귀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 * 4 월 19-20 일과 5 월 24-25 일 각각 1 박 2 일로 모곡 임야에서 산책로 및 미사 할 장소와 밭을 개척하는 노력 봉사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형제자매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 5 월 14 일 18 시부터 프라도 사제회 부총장이신 조세 아리스토 비에이라 신부님과 구 신부님 및 참제자 회원 16 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 * 6 월 17 일부터 20 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의 향울 성당(김 승현 스테파노 신부님, 대전교구에서 파견, 프라도사제회) 에서 정 태진 안드레아형제와 이 상윤 도미니꼬 형제가 몽골에 계신 한국인을 위한 피정을 하였습니다.
- * 6 월 22 일 11 시 고 방 선녀 카타리나님의 제 1 주기 추도미사가 종로성당의 광탄 묘지에서 34 명이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하였습니다. 구로본동 빈첸시오 출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 * 7 월 26 일(토) 호주 시드니의 세계청년대회(7/15-7/20) 참석 후 프랑스 생드니 교구장이신 오 영진 올리비에 주교님과의 간담회가 프라도의 집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 * 이 두봉 바오로 형제님의 장인이며 윤 경희 레지나 자매님의 부친이신 윤 정의 요셉님께서 5월 30일 주님 곁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 2008년 계획**

- 8월15일-16일 ; 포항성모 자애원 방문겸 성지순례
- 8월23일 -24일 ; 하계 피정 (프라도의 집, 모곡)
- 12월13일 -14일 ; 동계 피정 (프라도의 집)
- 모곡 임야 방문 및 등산 ; 1회/격월 예정
- 매주 토요일 15시 성체 조배와 나눔 및 미사
 15시 - 16시 ; 성체 조배
 16시 - 17시30분 ; 나눔
 17시30분 - 18시30분 ; 특전미사
- 매일12시 정오 ;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 및 화살기도

*** 운영위원회 조직**

- 자문위원 ; 진교훈, 황적인, 김선규, 최한국, 지희용, 홍승수, 김영자, 정영란, 김정임, 국옥희, 이상운, 최창주, 정태진
- 추진위원장 ; 양명신
- 총무분과장 ; 백영국 (봉사; 홍순숙, 시설; 김동성)
- 전례분과장 ; 박광용 (전례; 안상용, 제대; 김정숙)
- 구역분과장 ; 문수정 (백영국, 홍순숙, 손 수, 양명신)
- 재정분과장 ; 양명신
- 자문위원회 ; 1회/분기 자문위원회의
- 교육위원회 ; 피정 시 교육위원회
- 피정위원회 ; 각 팀 별 준비
- 운영위원회의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미사 후